

**역사·지리 교육을 중심으로
프랑스 중학교에서 그랑제꼴 준비반까지
중등교육에 비친 한국**

dy

Marianne ADJIMAN, Arlette PATURE-MAURY, Sébastien BERTRAND

I. 중학교 교육에서 한국의 위치

Marianne ADJIMAN, 유럽지역 및 국제 교류 담당 교사(ERAEI)

1. 프로젝트 사례: 장송 드 사이 중·고등학교(Lycée Janson de Sailly)의 한국 아틀리에

들어가며

장송 드 사이 중학교에서 운영된 한국 언어문화 아틀리에에는 학생, 한국인과 프랑스인 교사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두 국가와 두 문화 간의 만남이었다.

두 나라를 가르는 9,000km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우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한, 너무나 다른 두 나라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장송 드 사이 중학교에 한국이 처음 소개된 것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Jan) 음악선생님의 노력과 에너지로 시작된 한국 음악 아틀리에가 현재의 한국

아틀리에 프로젝트로 유지, 발전되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모두가 한국문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교가 아시아국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동아시아 문명에 심취했던 동문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 Strauss)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1908년생인 그는 중학교에 입학한 10살 때 이미 일본에 심취해 있었다. 학교 성적이 좋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에게 사준 일본 민화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198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여행하게 된다. 운명의 장난일까, 그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밟을 디딤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그는 인류학자로서, 인간의 보편성을 신봉하면서도 다른 존재의 발견이 그의 다른 점, 즉 우리가 문화의 차이라 부르는 것을 뛰어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경탄의 시선을 보냈다.

그가 그랬듯, 우리 학생들도 오늘날 선진국으로서의 친근한 면모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통해 한국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것처럼, 어떤 문화를 이해할 때 음악, 무용, 서예 등과 같이 예술적으로 발현된 그 문화의 전통을 탐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 학생들에게 본교의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기본방침 3항 ‘세상을 향해 열고 열리기’에 부합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작년 9월 18일 시작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13일 조회연 서울시 교육감의 방문 이후 본교와 여의도여고 사이에 체결된 자매결연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두 학교 간 상호교류협정의 4대 주요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교류 및 학생 교류 증진
- 양측 교사, 관리자 간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 확대

- 교육 분야 교류대표단 접대 간소화
- 양국 언어 교육 개발

두 학교 학생 간의 첫 교류는 올해 봄으로 예정되어 있다.

장송 드 사이 중학교에 초대된 한국

한국은 파리에서 9,000km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 아틀리에에는 장송 드 사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천 년의 역사를 가진 머나먼 문명과 조우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인 셈이다.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AFELAC)의 제안과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교육 부서의 지원으로 탄생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열광할 수 있었기에 이 두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장송 드 사이 중학교는 장(Jan) 선생님의 구상으로 6년 전부터 한국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다. 시작은 간소했다. 첫해에 3개 학급이 타악기, 민요 아틀리에에 참여하면서 섬세한 한국전통음악에 입문할 수 있었다. 네 가지 민속 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듯한 사물놀이를 배웠다. 이후 한국문화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끈끈해졌다. 특히 부리안 리(Bouriane Lee) 한국 대사관 문화 담당관과의 인연을 통해 2014년부터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모든 2학년 학생들이 타악기 아틀리에뿐만 아니라 추가로 운영된 서예 아틀리에에도 참여했다. 조형 예술 선생님의 지원 아래 서예와 한국 회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역사·지리 수업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한국의 지리, 세종대왕의 업적, 역경의 근대사, 문명 및 눈부신 경제발전에 관해 공부했다. 교과 외 시간에는 탈춤과 태권도 아틀리에도 운영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은 유능하면서도 친절하고 의욕적인 한국인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될 수 있었다.

2014년에는 학교 전체가 한국을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점심시간에 모두가 대사관 요리사가 만든 음식들을 시식했으며 한국 전통 음악을 들으며 한국 공예품을 감상했다.

열정에 사로잡힌 학생들은 각각 2014년 4월 8일, 2015년 4월 16일, 2016년 2월 8일 개최된 한국 문화 공연에 최선을 다했다. 4시간 동안 부리안 리 AFELAC 회장, 소랭(Sorin) 장송 드 사이 학교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앞에서 각종 연주, 무용, 태권도 시범 등을 선보였다.

교사들 역시 연주를 선보임으로써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관객들은 공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후, 클레르몽 실(室)에 전시된 학생들의 서예작품, 전시물 등을 관람했다.

이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학생들이 공연 당일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꼈다는 점이다. 그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던 어떤 문화를 배우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상하기에 충분했다. 학생 수십 명이 쓴 감사편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어떤 학생들은 더 나아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서예와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 싶어 했다. 우리 학생들이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을 위해 슬픔을 함께한 것을 보면 한국이 더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얻은 소양은 교육, 특히 예술사 교육에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사고력, 집중력,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게다가 멀고 다르게만 보였던 한국 문화에 마음을 여는 모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느낌 때문에 학급 내 분위기까지 개선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면 한-불 우호관계의 장래는 밝다.

2. 중학교 교육개혁 후 한국의 비중

I. 1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본 중학교 통학 구역 내 초등학교에 한국어 교육이 도입된다는 조건 하에 중학교 1학년부터 2개 제2외국어 배우는 학급에서 운영
- 중학교 2학년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개설(그러나 교육부는 ‘희귀언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음)
- 국제 학급에 개설(이 또한 교육부가 ‘희귀언어’ 과목 개설을 지양함)

II. 2 중학교 교육 및 교과서 내 한국의 비중

역사, 지리, 도덕 및 시민교육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관련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커리큘럼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예로 들 수는 있을 것이다.

중학교 교육개혁 실시에 따라 교사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개 학년의 커리큘럼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한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과과정에 따라 4개 학년의 전 과목 교과서를 5월에 출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한 출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II.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 과정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Arlette PATURE-MAURY, Sébastien BERTRAND

1. 역사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감소 추세

그림1. 고등학교 3학년 경제·사회 계열, 문과, 이과 역사 교과서, 아세프 출판사(J.M Lanbin 집필진), 2004

2 냉전(1948-1962)

A. La crise de Berlin doc.1

En février 1948, après le coup de Prague, tous les pays à l'Est du rideau de fer sont gouvernés par des communistes. Les Occidentaux décident alors d'accélérer la reconstruction de l'Allemagne afin de ramener la prospérité et de faire barrage au communisme ; ils créent une nouvelle monnaie, le Deutsche Mark.

Cette décision déclenche la première crise de la guerre froide, la crise de Berlin : par hostilité à la tentative de reconstitution d'une Allemagne sous contrôle occidental et en violation des accords internationaux, Staline décide le blocus de Berlin-Ouest en juin 1948 : il fait couper toutes les routes et voies ferrées reliant les zones d'occupation alliées en Allemagne à Berlin. Pour éviter que la ville ne soit asphyxiée, les Américains organisent un gigantesque pont aérien. N'ayant pu faire reculer les Occidentaux, Staline lève le blocus en mai 1949. Cette crise précipite la coupure de

B. 한국전쟁

B. La guerre de Corée doc.3

Une deuxième crise éclate en Corée l'année suivante. Ce pays, ancienne possession japonaise, est divisé depuis 1945 en deux zones d'occupation qui ont donné naissance, à partir de 1948, à une Corée du Sud pro-américaine et une Corée du Nord communiste. En juin 1950, la Corée du Nord envahit la Corée du Sud. L'ONU condamne l'agression ; une force internationale, principalement américaine, mais sous le drapeau de l'ONU, est envoyée en Corée du Sud ; elle repousse l'agresseur et envahit la Corée du Nord. Ceci provoque l'intervention de la Chine communiste, le recul des forces de l'ONU, avant que le front ne soit stabilisé à hauteur du 38^e parallèle.

Si aucun des deux camps ne réussit à remporter la victoire, le conflit durcit les positions dans les camps à l'Est par des purges et aux États-Unis par la « chasse aux sorcières », c'est-à-dire la dénonciation des Américains communistes, réels ou supposés. Après avoir fait 3 millions de morts, la guerre de Corée s'achève par un armistice, en juillet 1953. Comme l'Allemagne, la Corée reste divisée en deux États.

C. Les dernières crises doc.2, 4, 5 et 6

Après la mort de Staline en 1953, ses successeurs acceptent l'idée d'une « coexistence pacifique » entre communisme et capitalisme. Aux États-Unis, le président Eisenhower, partisan du roulement du communisme (rollback), veut aussi la paix. La tension diminue, c'est le « dégel ». La compétition entre les blocs gagne d'autres domaines : course aux armements, conquête spatiale, lutte d'influence dans le tiers-monde.

Trois crises majeures menacent encore la paix du monde jusqu'en 1962 :

- en 1956, la crise de Suez naît de la volonté du dirigeant égyptien Nasser de nationaliser le canal de Suez. À l'automne, les Hongrois se révoltent contre la présence soviétique. L'URSS réprime violemment l'insurrection ; les Occidentaux laissent faire ;
- le problème de Berlin resurgit à partir de 1958. Les Soviétiques désirent rattachier Berlin-Ouest à la RDA ou en faire une ville libre sous le contrôle de l'ONU. Depuis 1945, 3 millions d'Allemands de l'Est ont quitté la zone soviétique pour l'Ouest. Pour stopper cette fuite, la RDA édifie, avec l'accord de l'URSS, à partir du 13 août 1961, le mur de Berlin qui ferme complètement Berlin-Ouest.
- la crise la plus grave éclate à Cuba. Fidel Castro, qui a renversé en 1959 le dictateur Batista soutenu par les Américains, se tourne vers l'URSS, puis accepte l'installation de fusées soviétiques sur l'île. Lorsque les Américains le découvrent, une épreuve de force s'engage en octobre 1962, avant que l'URSS ne décide le retrait des fusées.

1 Le blocus de Berlin.

2 La crise de Suez (1956).

Le 26 juillet 1956, Nasser annonce la nationalisation du canal de Suez, touchant ainsi les intérêts économiques franco-anglais. En novembre, la France, le Royaume-Uni et Israël interviennent militairement dans la zone du canal. Militairement, c'est un succès, mais sous la pression conjointe des Américains et des Soviétiques, Français et Anglais doivent évacuer la zone du canal. Malgré la déroute de son armée, Nasser apparaît comme le grand vainqueur. Français et Anglais ne pourront plus intervenir militairement dans le monde sans l'accord des États-Unis.

3 Navire américain interceptant un cargo soviétique lors de la crise de Cuba.

La présence de missiles soviétiques à Cuba est repérée par l'aviation américaine le 14 octobre 1962. Le président américain J.F. Kennedy ordonne à la marine américaine de bloquer tout accès à Cuba le 22 octobre. Les navires soviétiques font demi-tour deux jours plus tard. Un accord est trouvé le 27 octobre (retrait des missiles soviétiques, non-intervention des Américains à Cuba), complété par un accord secret (retrait des missiles américains de Turquie). Les missiles soviétiques commencent à être démantelés le 28 octobre et le blocus de Cuba est levé le 21 novembre 1962.

4 La coexistence pacifique...

a...annoncée lors du XX^e Congrès du PCUS (1956)...

L'établissement de relations d'amitié durables entre les deux plus grandes puissances du monde, l'Union soviétique et les États-Unis d'Amérique, assure une importance majeure pour le renforcement de la paix dans le monde entier. Si l'on faisait repenser les relations entre l'URSS et les États-Unis sur les cinq principes majeurs de la coexistence pacifique : respect mutuel de l'intégrité territoriale et de la souveraineté, non-agression, non-ingérence dans les affaires intérieures, égalité et avantage réciproque, coexistence pacifique et coopération économique, cela aurait une portée vraiment exceptionnelle pour toute l'humanité. Le principe léniniste de la coexistence pacifique des États aux régimes sociaux différents a été et demeure la ligne générale de la politique extérieure de notre pays. [...] Tant qu'existe l'impérialisme, existe une base économique pour le déclenchement de la guerre. [...] Mais les guerres ne sont pas inévitables, ne sont pas fatales. Il y a à présent des forces sociales et politiques puissantes qui disposent de moyens sérieux pour empêcher les impérialistes de déclencher la guerre et, au cas où ces derniers l'oseraient, pour infliger une riposte foudroyante aux agresseurs.

Rapport de Khrouchchev au XX^e Congrès, février 1956.

b...et précisée en 1959

Vous voisin peut vous plaire ou ne pas vous plaire. Vous n'êtes pas obligé de vous lier d'amitié avec lui ni d'aller en visite chez lui. Mais vous vivez côte à côte, et que faire si ni vous ni lui ne voulez quitter le lieu auquel vous vous êtes habitués pour vous rendre dans une autre ville ? À plus forte raison, il en est ainsi dans les relations entre les États.

Il n'y a que deux issues : ou bien la guerre - et il faut bien dire que la guerre, au siècle des missiles et de la bombe à hydrogène, est grosse des conséquences les plus graves pour tous les peuples - ou bien la coexistence pacifique. Que ton voisin te plaise ou non, il n'y a rien d'autre à faire qu'à trouver un terrain d'entente avec lui, car nous n'avons qu'une seule planète.

Discours de Khrouchchev, juillet 1959.

5 La construction du mur de Berlin.

À partir du 18 août 1961, les barbelés sont remplacés par un mur de béton long de 113 kilomètres qui entoure complètement Berlin-Ouest. Les 83 points de passage antérieurs sont réduits à 13, sévèrement contrôlés. Le « mur » est ensuite complété par des fossés, des miradors et 256 postes de garde.

6

CHAPITRE 6 •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 1945 aux années 1970 109

집필진과 출판사가 같은 두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교과서에서는 교과과정 제1부 제2장에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세계정세를 다루는 과(課)가 있다. 주요 이념 모델 및 1970년대까지의 동·서 대립은

고등학교 3학년 문과와 경제사회계열의 연간 역사 수업 시수의 절반에 가까운 22시간을 차지한다. 내 경우에는 독일의 상황과 비교를 하기 위해 분쟁지역 설명에만 1시간을 투자했었다. 교과서의 설명과 그에 상응하는 지도를 통해 사건을 연대순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제목이 달린 한 문단으로 독립되어 있어 눈에 띈다(그림1 왼쪽 페이지 B 문단).

2004~2011년 사이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이과 학생들이 2학년부터 역사·지리 시험을 치르게 하려고 냉전 관련 내용을 2학년으로 옮겼다. 냉전 관련 내용은 20세기의 전쟁을 다루는 제2주제에 포함되어 개정된 총 수업 시수의 1/3에도 못 미치는 16~17시간을 할당하도록 권고되었다. 제2주제에서는 양차 세계대전,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분쟁까지 다뤄야 하며 냉전에 관해 냉전, 이념 분쟁, 강대국 간 분쟁의 예로 1945~1989년의 베를린, 1962년 쿠바사태, 베트남 전쟁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과 할당된 수업 시수를 고려하면 한국 전쟁은 아주 짧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지도도 교과서에서 사라졌으며 1970년대 초의 냉전 구도를 나타낸 평면구형도만 실렸다. 이 정도면 16세 유럽 고등학생이 아시아 내의 한국의 위치를 알아내기에도 어려운 수준이다. 당연한 결과로, 한국전쟁 관련 내용도 반으로 줄었으며 연대순으로 짜인 내용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도 더는 제목이 달린 독립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 학생들이 질문하지를 양기를 바라며 지도를 별도로 준비해 고작 몇 분만 할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학업을 마친 보통의 고등학생이 오늘날의 한국의 지난 역사에 관해 지식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림2. 2011년 개정된 고등학교 2학년 경제·사회 계열, 문과, 이과 역사 교과서(J.M Lambin 집필진)

강대국 간 분쟁

A. 위기에 처한 세계

A Un monde au bord du gouff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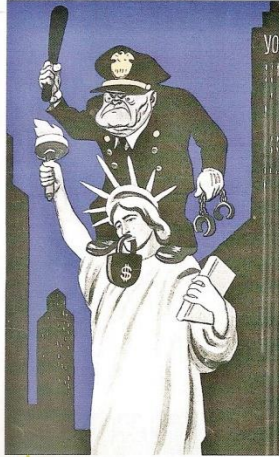
- Après le premier conflit de la guerre froide au sujet de Berlin, États-Unis et URSS continuent de s'affronter sans se combattre directement, risquant à plusieurs reprises de faire éclater une Troisième Guerre mondiale.
- **Le centre de gravité de la guerre froide se déplace vers l'Asie.** En 1949, après une longue guerre civile, les communistes prennent le pouvoir en Chine. De 1950 à 1953, en Corée, une guerre met aux prises les troupes de la Corée du Nord et de la Chine communiste d'une part, celles de la Corée du Sud envahie et des Américains sous le drapeau de l'ONU, d'autre part. Ce conflit, qui fait trois millions de morts, s'achève par un armistice le 27 juillet 1953. Comme l'Allemagne, la Corée est divisée en deux États et devient le symbole de la guerre froide en Asie. Au même moment, la guerre d'Indochine, guerre de décolonisation à l'origine, devient également un affrontement entre communistes et Occidentaux.

B Une détente fragile

- **Après la mort de Staline en 1953**, le nouveau dirigeant de l'URSS, Khrouchtchev, cherche à établir avec les États-Unis une « coexistence pacifique » (doc. 3). Mais les faits démentent ces intentions, comme le prouvent la poursuite de la course aux armements dans les deux camps, la construction du mur de Berlin en 1961, la crise de Cuba en 1962 et le déclenchement de la guerre du Vietnam en 1962.
- **Néanmoins, ces conflits ne provoquent pas de crises majeures** entre les deux Grands. Les accords d'Helsinki, signés le 1^{er} août 1975, semblent amorcer une détente dans la guerre froide. Toutefois, après 1975, Moscou profite de l'affaiblissement des États-Unis au temps de la présidence démocrate de Carter et de leur défaite au Vietnam, pour mener une politique d'expansion hors d'Europe. En Afrique, plusieurs pays s'alignent sur l'URSS (Angola, Mozambique, Éthiopie). En Afghanistan, l'Armée rouge intervient en 1979 pour soutenir un régime prosoviétique.

C Le dernier round

- Dans les années 1980, **les États-Unis réaffirment leur puissance face à l'URSS.** « *America is back!* », proclame le président Reagan, républicain élu en 1980. En 1983, face aux fusées SS-20 installées par l'URSS en Europe de l'Est, Reagan déploie en Europe occidentale les fusées Pershing (doc. 5) et lance un programme de défense stratégique, baptisé « guerre des étoiles », destiné à contrer la menace des fusées soviétiques.
- Au même moment, Gorbatchev, nouveau dirigeant soviétique, tente de sauver l'économie soviétique de l'effondrement, par un vaste plan de restructuration. C'est une des raisons pour lesquelles il ne peut poursuivre la course aux armements. Le 8 décembre 1987, Gorbatchev et Reagan signent à Washington un traité (doc. 4) qui élimine les armes nucléaires de courte et moyenne portées (SS-20 et Pershing). **Ainsi, les États-Unis ont imposé à l'URSS une course aux armements** qui épuise cette dernière et aboutit en 1991 à l'effondrement de l'URSS, marquant ainsi la fin de la guerre froide.



- 1 Affiche soviétique de 1949 « Liberté américaine » (détail)
- 1 Identifiez personnages et symboles.
 - 2 Quel rapport peut-on établir avec le titre de l'affiche ?
 - 3 Quelle idée l'auteur de l'affiche veut-il exprimer ?

Vocabulaire

- **Coexistence pacifique** : doctrine diplomatique énoncée par Khrouchtchev en 1956, qui limite l'affrontement avec les États-Unis afin de préserver la possibilité d'une victoire finale du communisme.
- **Accords d'Helsinki** : accords signés en 1975 par 33 États dont l'URSS, les États-Unis et le Canada. Ils s'engagent à respecter les droits de l'homme et à favoriser la coopération entre les États et la libre circulation des personnes.

2. 2016년 역사·지리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제안

역사과목

주제, 질문, 활용	비교해보기
<p>고1</p> <p>3. 11~13세기 중세 유럽의 사회와 문화</p>	
<p>⑩ 기독교: 종교 유산 탐구 기독교의 규모, 확산, 저항</p> <p>⑩ 농촌 사회 및 문화: 농업 공동체의 삶 봉건제도</p> <p>⑩ 도시 사회 및 문화: 도시의 발달 2개 도시 사례 탐구</p>	<p>고려 시대 집중 탐구, 국교(國敎)로서의 불교 사찰(寺刹) 탐구 불교 신자와 신유교주의자</p> <p>양반, 평민, 천민 계층으로 구성된 신분사회</p> <p>개성</p>
<p>4. 근세 유럽의 지리·문화적 변화</p>	
<p>⑩ 세계로의 확장: 접촉의 장소 항해사 무역항 정복당한 도시</p> <p>⑩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15~16세기): 종교개혁가(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자 출판인 예술가</p>	<p>(한국의 다른 시대 및 유럽인들과의 접촉 제시) 일본과의 전쟁(임진왜란) 거북선 인물탐구: 이순신 포르투갈의 참전 집중 탐구 및 사례 탐구: 인쇄술 발명 한글 창제 세종대왕</p>

<p>⑩ 새로이 나타난 과학, 기술 정신: 과학자 18세기 과학의 전파</p>	<p>불교 배척 예술가 은둔 국가 1668년, 헨드릭 하멜, 유럽에 처음으로 한국 소개</p>
<p>5. 혁명, 자유, 근대 초기 국가들</p>	
<p>⑩ 프랑스혁명 ⑩ 프랑스와 유럽 내 자유 및 국가들</p>	<p>프랑스 혁명이 한국에 영향을 주었는가? 두 이웃 강대국과 유럽인의 등장에 직면한 조선</p>
<p>고2 문과 및 경제사회계열 1. 20세기의 경제성장과 세계화</p>	
<p>경제성장과 세계화: ⑩ 1850년 이후 경제성장 및 세계화 과정 ⑩ 세계 경제 흐름 사회의 변천: ⑩ 1850년 이후 프랑스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변화 ⑩ 20세기의 이민</p>	<p>한국은 어떻게 ‘아시아의 용’이 되었나?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국 경제활동인구와 비교 한국의 이민과 그 성격, 쟁점 및 토론</p>
<p>2. 20세기의 전쟁</p>	
<p>양차 세계대전과 평화에 대한 희망: ⑩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의 경험 ⑩ 제2차 세계대전, 대량학살전쟁</p>	<p>집중, 탐구주제 일본은 어떻게 한국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나?</p>

<p>⑩ UN, 새로운 세계질서의 희망</p> <p>냉전에서 냉전 종식 이후 분쟁까지:</p> <p>⑩ 냉전, 이념 분쟁, 강대국 간 분쟁</p> <p>⑩ 냉전 종식 후 분쟁: 걸프 전(1990~1991), 사라예보 전(1992~1995), 9·11사태(2001)</p>	<p>위안부 여성 되풀이된 점령</p> <p>한국전쟁, 냉전의 또 다른 상징적 무대 DMZ</p> <p>한반도, 현재에도 존재하는 냉전의 흔적 미군의 남한 주둔</p> <p>9·11사태, 한국 학교에서 다뤄지는가? 한국에서 9·11사태에 대한 인식은?</p>
<p>3. 전체주의시대</p>	
<p>전체주의 형성 과정 및 전체주의 체제의 출현(소비에트, 파시스트, 나치)</p> <p>전체주의 체제의 붕괴:</p> <p>⑩ 탈 나치화와 뉘른베르크 재판</p> <p>⑩ 고르바초프와 구소련의 붕괴</p>	<p>한국의 ‘탈일본화’, 그 조치와 쟁점은?</p>
<p>4. 식민지화와 탈식민주의</p>	
<p>1931년 프랑스 식민제국의 현실, 의미와 그에 대한 반발</p> <p>탈식민주의: 알제리 독립전쟁</p>	<p>일본 식민지배의 영향(1910~1945)</p> <p>일본 당국에 대한 반발</p> <p>인물: 고종황제, 순종</p>
<p>5. 프랑스인과 공화국</p>	
<p>3개의 공화국:</p> <p>⑩ 공화국 정신의 정착</p> <p>⑩ 나치와 비시정부에 대항한 레지스탕스</p> <p>⑩ 1958~1962년, 새로운 공화국</p>	<p>항일운동(3.1운동)</p> <p>인물탐구: 유관순</p> <p>민주주의의 더딘 정착 과정</p>

<p>프랑스 공화국과 사회의 변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공화국과 노동자 문제 ⑩ 공화국과 종교, 정교분리의 원칙 ⑩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p>1960년대 한국 노동자: 노동환경, 의미, 반발</p> <p>한국 내 기독교 전파</p> <p>종교 간 관계는?</p> <p>종교와 권력의 관계는?</p> <p>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p>
<p>고3 문과, 경제사회계열</p> <p>1. 사회와 과거의 관계</p>	
<p>유산의 역사적 해석:</p> <p style="padding-left: 40px;">역사의 중심지인 로마, 예루살렘, 파리 중 택1</p> <p>기억의 역사적 해석(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프랑스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 ⑩ 알제리 독립 전쟁에 대한 기억 	<p>서울의 과거 재발견하기</p> <p>관련 예술작품, 그림, 소설, 영화 등을 제시하며 다음 주제들 집중 탐구</p> <p>유관순: 회상록</p> <p>과거의 기억이 오늘날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p>
<p>2. 19세기~오늘날까지 유럽의 이념과 사상</p>	
<p>사회주의와 노동운동:</p> <p style="padding-left: 40px;">1875년 이후 독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합주의</p> <p>언론과 여론:</p> <p style="padding-left: 40px;">드레퓔스 사건 이후 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반응</p>	<p>196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p> <p>부패 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반응</p> <p>‘엄지 세대’의 정치 참여</p>
<p>3.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강대국 간 긴장</p>	

<p>강대국의 행보:</p> <p> 월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이후</p> <p> 미국과 세계</p> <p> 1919년 이후 중국과 세계</p> <p>또 다른 분쟁의 발생지: 근동</p>	<p>1949년 이후 한-중 관계</p>
<p>4.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정부 차원</p>	
<p>국민국가 차원:</p> <p> 1946년 이후 프랑스 국가운영, 유산과 변천 과정</p> <p>대륙 차원:</p> <p> 1948년 이후 유럽정치통합계획</p> <p>세계 차원:</p> <p> 1944년 이후 세계 경제 거버넌스</p>	<p>1962~2012년,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유산과 변천 과정</p> <p>APEC, ASEAN, SARRC 등 지역 기구 내 한국의 역할</p> <p>G20, OECD 등 국제기구 내 한국의 역할</p>

지리 과목

주제, 질문, 활용	비교해보기
<p>고1</p> <p>1. 지도 원칙: 지속 가능한 발전</p>	<p>한정된 공간에 집중된 인구밀도:</p> <p>수자원 관리</p> <p>식량의 자급자족 혹은 틈새 제품?</p> <p>자연보호지역, 주체와 쟁점</p> <p>서울은 지속 가능한 도시인가?</p> <p>연안지대에 증가하는 위험(고리)</p>
<p>2. 자원 관리:</p>	
<p>인류의 식량</p> <p>물, 필수불가결한 자원</p>	<p>벼농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인가?</p> <p>필수적인 원자력 에너지: 고리 원자력 발전소</p>

에너지 이슈	
3. 도시 개발:	
도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도시의 성장, 사회적공간 불평등 ⑩ 교통과 이동 ⑩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p>수도권 거주자 2,200만명: 이례적인 성장</p> <p>교통과 이동</p>
4. 자연공간 관리:	
주목 받는 연안지대	세계 10대 항구 부산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공간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위험 관리
고2 문과, 경제사회계열	
1. 우리 생활권	
우리 생활권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학교 인근 지역 정비 ⑩ 국토정비사업의 주체와 쟁점 <p>지방, 삶의 터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학교가 위치한 지방 ⑩ 프랑스와 타 유럽국가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p>고1에서 지도 원칙을 위해 제안된 주제들을 고2 교육과정에서도 쓸 수 있음.</p> <p>논란이 많은 도시 정비: 청계천</p> <p>도(道)와 광역시</p>
2. 프랑스 국토 정비와 개발	
환경 보호와 환경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 ⑩ 프랑스 국토의 잠재력과 제약 <p>프랑스의 도시들:</p>	<p>고1에서 했던 사례탐구 재활용</p> <p>한국의 국토: 어려운 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인구이동, 도시화, 대도시화 ⑩ 도시의 사회적·공간적 격차를 줄이는 방법 ⑩ 농어촌 <p>세계화 시대 생산지대의 역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혁신 지역 ⑩ 세계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농업 지대 ⑩ 세계화로 인한 지방의 경제활동 동력 <p>세계의 이동성, 흐름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루아시(Roissy) ⑩ 프랑스 영토의 연결 불평등 (교통과 디지털) 	<p>이 활용문제 세 가지를 한국에 똑같이 적용</p> <p>로봇 경쟁</p> <p>고1 탐구주제 재활용</p> <p>아직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송도국제신도시</p> <p>인천 신공항</p> <p>한국을 동아시아와 세계로 이어주는 관문 사이버 코리아</p>
<p>3. EU, 국토 발전의 동력</p>	
<p>유럽 지역에서 EU 영토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동질성과 다양성 사이의 유럽 ⑩ 유럽: 국경과 제약 ⑩ 사회·공간적 차별과 불평등 <p>EU 국가들의 해외영토</p>	<p>한반도 화해는 불가능한가?</p> <p>한국 및 남·북한 간 사회·공간적 차별과 불평등(?)</p> <p>한국경제에서 도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제주도</p>

<p>4. 세계화 시대의 프랑스와 유럽</p>	
<p>세계화 시대의 유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EU, 주요주체와 거점 ⑩ 해안지구 ⑩ EU의 교류거점 	<p>서해의 해안지구</p>
<p>세계화 시대의 프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세계 속의 프랑스 ⑩ 프랑스, 관광의 중심 ⑩ 파리, 세계적 도시 	<p>이 활용문제 세 가지를 한국에 똑같이 적용 소프트 파워, 한류 국제관광 개발에 대한 의지 서울, 세계적 도시</p>
<p>고3 문과, 경제·사회계열</p>	
<p>1. 복잡한 세계사의 핵심</p>	
<p>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도</p> <p>그래픽 표시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p>	<p>한국 교과서 내 지도 표시방법</p>
<p>2. 세계화의 활력</p>	
<p>현재진행 중인 세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글로벌 제품 ⑩ 과정, 주체, 토론 ⑩ 이동성, 네트워크, 흐름 	<p>스마트폰이 주로 다뤄짐 재벌의 비중 삼성의 다각화</p>
<p>세계화 시대의 영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글로벌 도시 ⑩ 불균형적으로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영토 	<p>서울, 세계적 도시 불균형적으로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한국 영토</p>

<p>⑩ 해양공간: 지리 전략적 접근</p>	<p>서해와 동해 상의 긴장</p>
<p>3. 주요 대륙의 지리적 역동</p>	
<p>미국: 북미의 강대국, 남미의 성장 아프리카: 개발과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성장에 따른 문제점</p>	<p>한국의 아프리카 진출(남·북한)</p>
<p>⑩ 몸바이 ⑩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른 과제</p>	<p>인구의 노령화에 직면한 한국</p>
<p>⑩ 일본, 중국: 지역 내 경쟁, 세계적 야망</p>	<p>두 이웃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p>

III -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배우는 한국

상경.과학 계열 예시

Sébastien BERTRAND

1- 불사조 한국, 이례적인 예

그랑제꼴 준비반은 특수 고등 교육으로 이곳의 학생들은 나라를 황폐화시켰던 한국전쟁,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아시아의 « 용 », 수 백만이 사는 대도시,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 대기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다. 틀리진 않았지만, 이러한 진부한 이미지로 인해 현대 세계 속 한국의 지위를 한정시키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상경.과학 계열 학생은 첫 해 현대사, 지리, 지정학을 배우며, 이를 통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역사, 지리, 지정학 수업을 주 6 시간 실시함으로써 교사가 선택한 일부 주제에 대해 특별히 깊이 있게 학습하게 된다.

- 한국의 역사를 가장 처참했던 시기부터 가장 안정적인 시기까지, 현대사의 이동과 세계화라는 두 분야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 9 개의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심도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참조).

그림 3 - 상경.과학 계열 1 학년 역사, 지리, 지정학 과목의 한국 부분

구성, 부분, 장	한국에 대한 주제 및 특별 수업
구성 I : 20 세기 격동하는 세계 (1913 년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I.1 전쟁과 위기 사이의 세계 (1913-1990년대 초반) I.1.1. 1913년, 1939년, 1945년 세계 지정학 표 I.1.2. 냉전과 식민지 지정학 I.1.3. 유럽 구성 및 쟁점	9 월-11 월 - 일제 지배 하의 한국 - 한국 분열, 한국 전쟁 - 냉전 당시 한국의 위치 (냉전 당시 한국 : 동양의 불사조)
I.2. 세계 경제: 성장, 파멸, 격동의 시기 (1945 - 1990년대 초반) I.2.1.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 성장과 성장의 종류 I.2.2.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위기와 파멸 I.2.3. 생산과 무역의 내부화부터 세계화까지	11 월- 12 월 - 한국의 « 경제 기적 » : 박정희 정부 하의 한국 («한강의 기적» - 1960 년대 한국 - 아시아 용의 경제 성장) - 1970 년대 세계 경제 위기를 견뎌낸 한국 (용의 비상 - 1970-1980 년대 한국) - 아시아의 용, 한국 - 한-일 경제 관계
I.3. 프랑스, 변화 속 열강 (194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I.3.1. 역동적 경제, 사회 I.3.2. 영토 변화 I.3.3. 세계 속 프랑스	1 월- 2 월 - 1945 년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한-불 관계 (한국 전쟁, 외교, 경제 협력)
구성 II : 현대 세계화 : 힘의 관계와 쟁점	
II.1. 세계화 : 주체, 역동, 공간 II.1.1 주체 : 인간, 기업, 국가, 지역 기구,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 II.1.2. 생산 시스템과 유통 II.1.3. 세계화 속 영토, 해상 공간, 토지, 무형물, 국경	3 월 - 아시아 지역 기구 내 한국 - 새로운 노동 분업 속 한국 (세기의 중요한 시기를 맞는 한국 - 글로벌 열강) - 한국 재벌의 성공 - 한국의 대도시, 연안, 개방 지역 - 문화 세계화 속 한국, 교육적 표본
II. 2. 세계화 : 건설, 경쟁, 상호의존 II.2.1. « 팩스 아메리카나 »부터 다극화까지 II.2.2. 현재 세계 지정학 표 II.2.3. 세계화 속 프랑스	4 월-5 월 - 냉전 이후 남북관계 - 아시아와 국제 지정학 속 한국

<p>II.3. 발전 과제 및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한 쟁점</p> <p>II.3.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 인구, 불평등, 보건, 식량, 물</p> <p>II.3.2. 에너지와 원료 : 풍족과 고갈 사이</p> <p>II.3.3. 논쟁이 되는 세계화</p>	<p>5 월-6 월</p> <p>- 한국과 지속 가능한 발전</p> <p>- 한국의 에너지와 원료 개발</p>
--	---

2 - 실제 한국의 모습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접근을 위한 프로젝트

1- 동기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맞기 전, 불행한 20 세기 초반(식민 지배와 전쟁)을 정면으로 겪어야 했던 국민들은 현대 정치 경제사의 모든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예가 아닐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불사조처럼, 한국은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피어나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입지를 굳히게 된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 많은 국가가 이 같은 난관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편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 편의 서사와도 같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전 인류 차원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 과정 - 대한민국 대사관과의 이익적 협력

대한민국 대사관과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는 이부런 (LEE Bouriane) 주불 한국교육원장의 값지고 열정적인 지원과 파트릭 소랭 (Patrick SORIN) 교장의 즉각적인 후원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전 과정에 걸친 프로젝트를 점차 마련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현대 한국사 특별 수업
- 학생 발표
-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인과의 만남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며 과제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상경.과학 계열 1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참여하기로 했다.

2015-2016 학년도 프로젝트의 세 가지 내용은 아래 기술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한국에 대한 특별 수업**

- 4 회에 걸쳐 아래 주제에 대해 1-2 시간 분량의 수업 진행
- 냉전 당시 한국-아시아의 불사조
- « 한강의 기적 » - 1960년대 한국 - 아시아 용의 경제 성장
- 용의 비상 - 1970-1980년대 한국
- 세기의 중요한 시기를 맞는 한국 - 글로벌 열강

각 수업은 연간 진행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림 4와 같은 참고 자료가 준비된다.

그림 4 - 수업 3 차 참고 자료 :
« 용의 비상 - 1970-1980년대 한국 »

L'envol du dragon
La Corée du Sud dans les années 1970 et 1980

I - Le tournant des années 1970

- 1 - L'impact des chocs et le risque de la crise
- 2 - Une logique de croissance imperturbable ?

II - Le plus puissant des NPI des années 1980

- 1 - Résoudre la crise de croissance
- 2 - Une décennie de prospérité
- 3 - Les Sud-Coréens et la croissance ; vers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Conclusion : du sous-développement au développement

Doc 1 : la Corée du Sud, une puissance exportatrice mondiale à la fin des années 1970

Une telle croissance des exportations exprime avec éloquence l'extension prise par l'électricité du peuple coréen dans le monde. En vérité, les Coréens et les produits de Corée sont présents dans tous les continents du monde. Le matériel lourd et les équipements fabriqués en Corée sont utilisés pour défricher les forêts d'Afrique. Les réfrigérateurs coréens se trouvent désormais chez les familles de la plupart des pays d'Asie. Nos téléviseurs sont vendus en Europe et aux Etats-Unis, cependant que les voitures de fabrication et de marque coréennes sont très appréciées dans les campagnes comme dans les villes d'Amérique du Sud. Il faut encore ajouter que nos entrepreneurs, nos techniciens et les représentants de nos grandes sociétés ont d'importantes activités dans les constructions et les échanges commerciaux au Moyen-Orient, en Afrique et partout dans le monde.

En ce qui concerne la structure de nos exportations, nous nous rapprochons de plus en plus des pays hautement industrialisés. En particulier, grâce

aux efforts réalisés dans les années 70 pour développer les industries lourdes et chimiques, les exportations de tungstène, de seiches, d'algues, de soies, font déjà partie de l'histoire ancienne ; désormais, les exportations reposent surtout sur les textiles synthétiques, les contreplaqués, les voitures, les navires, les machines, les produits électroniques, etc. L'exportation d'usines, clés en main, représente également une activité très importante. Il nous est donc maintenant permis d'espérer prendre place dans un avenir proche parmi les pays développés et hautement industrialisés.

Source : Park Chung-hee, *La voie du renouveau de la nation*, Paris, Stock, pp. 130-131.

Doc 2 : quelques marqueurs de la croissance sud-coréenne (Source : rapport Ramses 1995)

Taux de croissance comparés du PIB en Asie orientale			
Évolution de l'industrialisation de la Corée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Textiles	Fibres chimiques	Siderurgie	Automobile
Sucre	Confection	Acier	Composants électroniques
Farine	Conserves	Pétrochimie	Semi-conducteurs
	Ciment	Mécanique	Énergie nucléaire
	Engrais	Construction navale	
	Électricité		
	Raffinage de pétrole		

	1986	1987	1988
Corée du Sud	12,4	12,0	11,5
Hong Kong	10,9	14,5	8,3
Inde	4,9	4,8	10,2
Indonésie	5,9	4,9	5,7
Malaisie	1,2	5,3	8,7
Philippines	3,4	4,8	6,3
Singapour	-1,8	9,4	11,1
Taiwan	11,6	12,3	7,3
Thaïlande	5,5	9,5	13,3

La sidérurgie coréenne (en Mt)

	1979	1986	1992
Production	7,6	14,6	21,2
Importations	3,3	2,1	5,4
Exportations	3,8	5,3	5,9
Marché intérieur	7,1	11,5	20,6

Le développement de l'électronique grand public (en millions de dollars)

	1979	1986	1992
Production	1 230	3 923	7 901
Exportations	877	2 495	5 476
Marché intérieur	373	1 508	2 695

*** 학생 발표**

« 짧은 발표 »는 매년 학생들이 해야 하는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발표 준비에 있어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올해 6 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6 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다.

- 한국 싱크탱크 (R&D, 총 교육 및 전략)
- 한국의 방위(연맹, 한국 내 연합군, 징병)
-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사회적 쟁점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및 약속)
- 전 세계로의 한국 문화 전파 (한류, KOICA, 문화 제품 수출)
- 대북관련 한국 (협력에 대한 검토, 통일 전망)
- 한국의 선박 (국가의 역할, 경제적 위치 및 사용 원자재)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접근이 용이한 한국 문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발표를 준비하며 학생들은 자발성을 기를 수 있다.

***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인과의 만남**

매 만남이 있기 전 같은 방식의 준비 절차가 선행된다 (교사는 대사관과 관련 기관과의 만남을 조직하고 확인).

- 1 - 각 학생별 업무 분배 (그룹 주제 교육 또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지원 학생 선발)
- 2 - 해당 인물 또는 대리자와 학생 간의 직접 연락(초대, 질의, 사례)
- 3 - 전체 학생들과 다양한 매체(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사관 교육 분야 간행지(그림 5 참조) 등)를 위해 준비 자료, 보고서 혹은) 결과 보고 작성하기

2015-2016 예정 만남

- 2015 년 11 월 27 일 목요일 : 상경.과학 계열반 대표와 모철민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와의 만남
- 2015 년 12 월 1 일 화요일 :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유네스코 연설
- 3 월 31 일 목요일 : 한국 전문 학생들과 한국 기업인들 간의 4 차 만남에 상경.과학 계열 학생 참여

- 4 월 15 일 금요일 : 상경.과학 계열 학생들과 대한민국 대사관 무관 이재학 대령과의 만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상경.과학 계열반에서는 2015 년 6 월 14 일 화요일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로 모철민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를 초청하였다.

초청 행사 예정 프로그램

- 상경.과학 계열 1 반이 수행한 활동에 대한 소개 및 발표.

- « 한-불 관계 » 및 « 오늘날 세계 속 한국 »이란 주제에 대해 대한민국 대사의 참석 학생들이 조직한 강연

이번 행사는 한-불 수교 130 주년 기념 행사에 포함된다.

그림 5 - 상경.과학 계열 1 반 프로젝트 보고서 (2014 년 12 월)
대한민국 대사관 교육 분야 간행물 중 (2015 년 3 호)



20 EDUCORÉE 에듀코레 n°3 / 2015

Sortie du mardi 1er décembre 2015 au siège de l'UNESCO
Pour assister à l'intervention de Madame Park Geun-hye, Président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Récit de Sarah BREITBURD, étudiante d'ECS 1 au lycée Janson de Sailly

« C'est le 10 novembre que notre professeur d'Histoire nous a fait part de la possibilité qui nous était offerte d'assister à une conférence de la présidente de la Corée du sud, Madame Park, à l'UNESCO. Cette opportunité, qui s'inscrivait dans le cadre du partenariat existant entre Janson de Sailly et la Corée du Sud, a suscité l'enthousiasme immédiat de toute la classe. Chacun avait conscience de la chance qui se présentait ainsi à nous. Nous pouvions assister à un événement diplomatique et géopolitique intéressant qui de plus ouvrait une fenêtre sur l'implication future de la Corée du Sud dans le cadre de l'UNESCO.

Le premier temps fut celui de la préparation. Il était évidemment indispensable pour nous de mieux connaître la Corée du Sud. Monsieur Bertrand, notre professeur d'Histoire, nous fit d'abord un cours sur ce pays dans la guerre froide, ce qui permettait en même temps d'approfondir nos connaissances sur un point du programme. Trois groupes d'étudiants nous ont ensuite présenté leur exposé sur la place de la Corée du Sud dans le monde actuel, le système politique sud-coréen de 1979 à nos jours et l'identité sud-coréenne. Cette étape fut passionnante car elle nous permit de découvrir un pays peu connu de la plupart d'entre nous.

Deuxième étape de la préparation : nous allions représenter notre lycée à l'UNESCO, il nous fallait donc un accessoire vestimentaire commun à tous pour nous distinguer. Les filles décidèrent d'acheter une broche évoquant la fleur nationale de Corée du Sud et les garçons deux pochettes, une bleue et une rouge, rappelant les couleurs du drapeau coréen.

Dernière étape inattendue, les tragiques événements du 13 novembre rendirent la sortie plus compliquée, en raison des mesures de sécurité nécessaires. Les interventions conjointes de l'administration du lycée, de notre professeur d'Histoire et de Mme Bourriane Lee, attachée d'Education à l'Ambassade de Corée du Sud, ont néanmoins permis la participation de tous à la conférence.

Le jour J est arrivé ; le 1er décembre, rendez-vous à Janson de Sailly à 9h15 pour nous rendre à l'UNESCO à pied. Arrivés sur place, Madame Lee, l'attachée d'Education à l'Ambassade, nous attendait. L'accueil fut très chaleureux. La conférence a eu lieu dans le grand auditorium de l'UNESCO. La majorité de l'auditoire était coréenne.

Après une magnifique chanson populaire coréenne, interprétée par une soprano, « artiste pour la paix » de l'UNESCO, Sumi Jo, accompagnée au piano, la directrice générale de l'UNESCO, Madame Irina Bokova, est intervenue pour introduire Madame Park Geun-hye, présidente de la Corée du Sud.

Après son discours sur les relations entre son pays et l'UNESCO, toute la classe s'est retrouvée dans le hall où les officiels coréens (dont deux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ont eu la gentillesse de faire des photographies avec nous. Ce fut un moment de grande convivialité. Nous étions très honorés de représenter notre lycée ! C'est donc à la fois fiers et ravis que nous sommes rentrés à Janson de Sailly avec la ferme intention de poursuivre les relations ainsi nouées avec la Corée du Sud. » ■

Astrée AIZON, Sarah BREITBURD et Juliette ESCALT, étudiantes d'ECS 1 en CPGE au lycée Janson de Sailly



n°3 / 2015 EDUCORÉE 에듀코레 21

Lettre de remerciement

De : la classe d'ECS1 en CPGE au lycée Janson de Sailly à Paris

A : Son Excellence Monsieur Mo Chul-min
Ambassadeur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n France
Paris, le 29 novembre 2015

Votre Excellence,

Par cette missive, nous tenons à vous transmettre nos plus chaleureux remerciements, quant à l'opportunité que vous nous avez donnée de pouvoir vous rencontrer ce vendredi 27 novembre. Nous sommes honorés par ce geste, qui renforce notre détermination en ce qui concerne la poursuite de notre projet d'étude sur la République de Corée.

L'étude de l'histoire de la Corée du Sud, tant sur le plan politique et économique que culturel dans la seconde partie du XXe siècle est essentielle pour analyser la mondialisation contemporaine, ses enjeux, ainsi qu'elle est indispensable à la compréhension de la géopolitique asiatique. Une conférence comme celle de Madam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est une occasion unique pour nous de donner un point de vue interne sur la place actuelle de la Corée : une rencontre de ce type ne peut qu'amplifier notre curiosité.

L'intérêt que vous avez pu manifester à ce projet par votre attention portée à de simples travaux préparatoires à cette conférence nous encourage dans notre objectif de travail de long terme. En effet, en soutenant notre projet, vous nous permettez de réaffirmer notre volonté de mener à bien la journée spéciale, qui se tiendra le 24 mars 2016 à l'occasion de l'anniversaire des 130 de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nos deux Etats. Dans cette optique, nous avons l'ambition de dresser un tableau de la place occupée par la Corée du Sud en France sur différents plans : politiques, économiques et culturels. Nous souhaitons ainsi réaliser une table ronde formée d'acteurs de ces relations liant République Française et République de Corée, et ainsi faire vivre les relations bilatérales entre nos cultures. Nous espérons, par l'organisation de ce forum, pouvoir très modestement honorer les services de l'Ambassade ainsi que l'amitié franco-coréenne.

Nous prions Votre Excellence d'agréer l'assurance de notre très haute considération.

Colin BAGET et Alma GALLAND,
Délégués de la classe d'ECS1 du lycée Janson de Sailly



La classe d'ECS 1 et leur professeur, M. BERTRAND, en compagnie de Mme Bourriane LEE, attachée d'Education à l'Ambassade, et de M. Geum-ko KANG et Yong-ho SON,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de la République de Corée